

# 해양 인식의 전환과 해양문화\*

구 모 룡\*\*

## The Transformation of the Recognition on the Sea and the Sea-Culture

Mo-Ryong Gu

< 목 차 >

Abstract

1. 머리말: 해양 문화론의 필요성

2. 한국인의 해양 우주론

3. 해양의 문화론

4. 탈근대적 해양문화 실천 방안

5. 남는 말

### Abstrac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sea, we do not recognize the culture on the sea seriously. So I will compose the sea-cultural studies in this paper. To do this project I analyzed Korean cosmology on sea first. And I defined the concept of sea-cultural studies. The sea-culture is our life style and signifying practices in everyday life. To develop sea-culture we must activate the cultural industry of the sea. With this we must turn our modern vision on the sea. The modern cultural sea is a production of modernity. The modern vision on the sea is divided by the subjects and the other. Its position is always on the one side. But from now on, we must constitute total and organic vision, naming postmodern, of the sea.

### 1. 머리말 : 해양 문화론의 필요성

신해양시대라는 개념이 시사하듯이 해양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체 지구의 71%가 해양인 만큼 지구는 地球가 아니라 海球라고 해도 될 법하며 이것이 지구 생태계의 유

\* 이 글은 2000년 6월 「부산시 해양수도 21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 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교수

기적 생명 활동에 차지하는 비중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해양은 열에너지를 저장하고 담수를 공급함으로써 기후를 조절하고 산소와 탄산가스를 순환시켜 생명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생태학적 의미는 지구 유기체가 인체에 유비되는 수준에서 더욱 의미가 커진다. 그러나 지구 유기체 개념과 관련한 해양 인식은 아직 그리 크지 않다. 이보다 자원과 운송의 통로라는 경제적 개념과 생활 환경이라는 사회적 개념이 지배적이고 오늘날 영토라는 국제정치적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해양은 수산자원과 광물자원의 제공처이자 운송의 통로이다. 전세계적으로 1,000톤 이상의 상선이 6만 척이 넘고, 총 6억 톤 이상의 화물 운송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간 무역 물자의 80% 이상이 해운으로 이루어져 이와 관련한 경제적 가치는 약 5조 달러로서 세계 총생산의 2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해양은 인류가 소비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16% 제공하고, 세계 석유 생산량의 25% 이상을 해저 유전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망간, 니켈, 코발트, 천연가스 등 막대한 양의 광물자원을 품고 있다. 그리고 해양은 인간 생활의 중요한 환경이다.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해안선에서 6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고 인구 250만 이상의 세계적인 대도시 가운데 3분의 2가 해안가에 있다. 인공섬, 관광과 위락과 해양 스포츠 공간-해상호텔과 해상레저시설, 해양과학관과 수족관, 해상유람과 잠수정 관광, 해상 낚시 공간, 해양 문화 유적 전시 시설과 해양문화산업 공간 등의 해양문화 공간을 확대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는 것은 해양이 생활 공간으로서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해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양의 문화론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현실문제에 가장 직접적인 정치·경제적 수준의 관심에 비하여 문화·의식적 수준의 해양 인식은 미미하다. 물론 해양에 관한 문화론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나 주로 원형론적 접근에 치우쳐 현실적 맥락을 놓치고 있다. 바다를 생명의 원천으로 보는 원형적 상징론이 현실문화와 관련되는 영역은 많지 않다. 따라서 해양의 문화론은 새롭게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는 생활 세계 수준에서의 해양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전제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1)한국인의 해양 인식과 관련한 해양의 우주론(cosmology)에 대하여 살피고 2)해양의 문화론을 구성하며 3)지역 해양 문화론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2. 한국인의 해양 우주론

해양의 우주론<sup>1)</sup>은 한국인이 바다를 어떻게 인식하며 그에 대하여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주론과의 관계에서 살피는 것이다. 한국인의 해양 우주론은 전통시대와 근대 이후로 나누어 살필 수 있을 것인데 전통시대의 그것은 한 마디로 다른 세상[異界]으로서의 바다라는 개념으로 진야된다. 신화에서 바다는 대체로 피안과 초월의 세계를 나타내는 표상이다. 신라의 탈해는 용궁 출신이며 가야 창건주인 수로왕의 부인 허황후도 바다 너머 나라에서 왔다. 이러한 신화에서 용은 바다와 하늘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초월적 상징이며 이것이 사는 곳이 곧 용궁이다. 민속에서 바다는 풍요와 번영의 원천이나 성역이어서 인간의 세계 저편에 있다. 용왕 먹이기와 용왕맞이는 해난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신앙의 한 양식으로 신성한 곳으로서의 바다를 나타낸다. 특히 금기의 풍습<sup>2)</sup>은 인간 세계와 바다의 거

1) 吉田禎吾(동양사회경제사연구회 역), 「바다의 코스모로지」, 『역사에서의 자연』(부산대학교원 동양사연구회, 2000)

리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예가 된다. 성역으로서의 바다는 바다를 종교의 대상이 되게 한다. 인생을 고해(苦海)에 비유하는 불교조차 해수관음이라든가 불국토(동해)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도교나 유교는 바다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도교가 지향하는 산수자연과 바다는 거리가 멀며 유교는 바다를 욕망과 여성의 등가물로 받아들여 이를 억압한다. 그런데 한국인이 처음부터 다른 세상으로서의 바다라는 해양 우주론을 내면화한 것은 아니다. 해양문화의 고고학은 선사시대에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해양 친화적이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을 갖고 있다. 가령 선사시대의 암각화인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가 뚜렷한 예가 된다.<sup>3)</sup> 따라서 문명화 과정에서 바다를 다른 세계로 보는 우주관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다른 세계로서의 바다라는 개념은 문학텍스트를 통해 살필 수도 있다. 『삼국사기』의 대세와 구칠의 이야기는 바다를 미지의 세계로 그리고 있고 『동해야서』의 丹邱 이야기 또한 바다를 별세계로 본다. 이것은 「청산별곡」과 「홍길동전」과 「허생전」에서는 섬의 상상력과 결합하여 이상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표해록』 류<sup>4)</sup>에 나타나 있듯이 바다는 광막과 고난의 대명사이다. 간혹 「심청전」과 「토끼전(별주부전)」에서처럼 다시 살아남이라는 엘리야데적 바다<sup>5)</sup>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전통시대의 바다는 대체로 다른 세계로서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가능성을 찾으려는 도전 의식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허황후(황옥) 신화와 같이 바다가 개국을 뜻하거나 문무왕이 죽어 용으로 환생하여 왜구를 막겠다고 했을 때 호국의 의미와 연관을 맺기<sup>6)</sup> 한다. 더 나아가서 장보고 대사의 국제 무역 활동 설화나 이순신과 관련한 영웅서사는 바다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유교가 지배한 조선시대의 후기에 이루어졌던 섬 비우기(空島) 정책과 쇄국 정책은 한국인의 부정적 해양관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해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근대 이후이다. 서구 근대가 해양을 통해 전파되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해양이 곧 근대성(modernity)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찍이 최남선은 지리학 전공자답게 새로운 문명을 바다와 결부시켰다. 이 점은 이광수의 계몽으로 이어지고 김기림과 정지용 등 근대주의자(modernist)에 의해 확산된다.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가 말하듯 식민지하의 근대 추구<sup>7)</sup> 비운을 맞는다.<sup>8)</sup> 이에 비해 대륙지향주의는 뚜렷한 애국적 경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해양의 근대성은 쉽게 획득되지 못한다. 특히 근대화(modernization) 과정에서 연안역의 역사와 민속이 거의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데 이르러 해양문화의 근대성이 뿌리내릴 수 있는 터전은 사라진다. 전통적인

2) 어업하는 집은 개를 기르지 않고, 개고기를 먹지 않음; 배에 제사할 때 여자를 태우지 않음; 바다에 나가는 어부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지 않음. 김정하, 「해양과 민속-바다 섬기기와 놀기」, 『해양문화연구』 2호 1997년

3) 여기에 그려진 그림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새끼고래를 등에 태우고 가는 어미 고래, 작살을 맞은 고래, 작살의 끈과 연결된 배, 그 배 위에 탄 사람의 수대로 잡은 고래가 정확히 등분되어 있는 모습, 고래와 함께 군집 생활을 하는 거북이, 상어 물개 등의 형상.

4) (1)최보(1454-1504)-표해록-제주도-중국 절강성 영파부-북경-요동-의주(43 인) (2)이지향(영조조인)-표주록-부산-일본 북해도-대관-대마도-부산(8 인) (3)장한철(1744-?) -표해록-제주도-유구-청산도-서울-제주도(29 인) (4)이방익(정조조인)-표해가-제주도-중국 복건성 팽후부-북경-요동-의주(8 인) (5)문순득(1777-1847)-표해록-우이도(소흑산도)-유구-중산도-필리핀-마카오-광둥-우이도(6인2인)(6)최두찬(1779-1821)-승사록-제주도-중국 절강성 영파부-북경-요동-봉황성(남여 50여인).

5) 엘리야데는 바다를 통하여 죽음과 재생, 입사initiation, 성현hierophany 등의 개념을 설명한 바 있다.

6) 다음은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전문이다. 아모도 그에게 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 흰 나비는 도도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 靑우우발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저러서 / 公主처럼 시러쳐서 도라온다. // 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거픈 /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러다.(1939) 이 시에서 나비가 식민지하의 근대주의자들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생활양식을 해체하는 것이 곧 근대성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통을 통하여 새로운 전통을 형성하는 것이 올바른 근대화의 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을 부정하고 근대를 세우려는 농축 근대화의 과정은 해양을 경제적 가치의 세계로 인식되게 하고 문화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내면화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바다에 관한 문화 의식 없는 경제적 접근은 역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환금가치의 등락에 따라 해양에 대한 인식도 오락가락하게 되는 것이다. 해양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해양문화의 내면화 없이 이루어지는 바다에서의 노동은 곧 노동의 소외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결국 바다를 좋아함이 바다를 바르게 인식함과 연결되고 바다와 더불어 삶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근대의 해양의식의 미성숙은 근대문학을 통해 찾아질 수 있다. 한국의 근대 해양문학은 가)바다를 동경하는 문학 나)연안역(어촌) 문학 다)바다를 체험한 문학 등으로 유분할 수 있는데 가)와 나)가 주류이고 다)의 경우 1970년대 이후에 일부 형성되었으나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sup>7)</sup> 그런데 진정한 해양문학은 원형론이나 상징론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론적 지평 위에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문학은 바다-배-항해의 세 요소가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sup>8)</sup> 그러나 이러한 경험론에 바탕을 둔 해양문학은 아직 그리 발전하고 있지 못한데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요인을 해양의식의 미성숙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3. 해양의 문화론

해양의 문화론을 구성하기 위하여 먼저 문화에 대한 개념을 살필 필요가 있다. 문화에 대한 고정 개념이나 편협한 개념으로 해양에 대한 부정적인 아부티스(의식과 무의식에 뿌리내리고 있는 취향의 구조)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예를 들어 고급문화론과 해양에 대한 유교적 아부티스는 접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에 대한 바른 개념을 세우는 일은 한국인의 부정적 해양인식이나

7) 소설가 천금성과 시인 김성식의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

8) 구모룡, 『해양문학론서설』, 『해양문화연구』 창간호(한국해양대학교부설 해양문화연구소, 1995). 여기서 이 세 요소가 지닌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바다는 물의 다양한 형태 가운데 하나이다. 물은 원초적인 물질이고 생명을 발생시키는 근원이다. 물은 유동적인 것. 그리고 형태가 없는 것들(공기)과 형태가 있는 것(대지와 고체들) 사이를 오간다. 따라서 그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유비가 된다. <바다로 돌아가는 것>은 <모성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곧 죽음을 맞는 것이다. 바다의 상징적 의미는 모든 생의 어머니이다. 그것은 죽음과 재생, 연원과 무한 그리고 무의식의 표현이 된다. 또한 현상적인 차원에서 바다는, 썰물과 밀물의 규칙적인 흔들림이 보이는 시간적 황홀을 보여주며, 악에 대해 투쟁하는 인간성의 거울, 혹은 투쟁의 장소가 된다. 바다의 이러한 상징적 의미로 하여 바다는 시작과 끝을 지닌 완결의 형식을 갖춘다. 따라서 주요한 상상력의 대상이 된다. (2)배는 운송의 방편이기 이전에 주거의 한 형태이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의 여행을 매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때로 신성한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때로 죽음과 버림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배는 항해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면서 인간의 다른 공간과 세계를 향한 여행의 욕망을 상징한다. 그러면서 이것은 온전한 형태의 삶의 공간이 된다. 배의 중앙에 있는 마스트는 신화 속의 우주목Cosmic Tree과 같다. 이 속에서의 삶의 환희와 행복, 변전과 죽음이 공존한다. 물론 이러한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다이다. 즉 바다로 인하여 배의 상징적 의미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바다는 곧 인간의 조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배의 여러 형태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로 변주된다. (3)항해는 곧 삶을 의미한다. 살아감이란 달리 다른 것으로 변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는 많은 질곡들이 도사리고 있다. 항해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 비유된다. 이것은 다른 곳을 향해 떠나는 배에 기원을 두면서 변화와 거부와 도피의 환상을 내포한다. 이것은 염세적인 절망과 낭만적 모험의 즐거움을 표현한다. 어느 경우이든 항해는 보들레르가 말한 것처럼 <쓰디쓴 깨달음>을 가져다준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회귀의 의미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변전의 과정과 귀결을 갖더라도 회귀의 의미는 남게 된다.

해양의식의 미성숙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는 데 근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그 동안 문화는 대략 다섯 가지의 개념을 보였다.

- (1) 토지, 곡식, 가축의 경작
- (2) 정신, 예술, 문명의 배양
- (3) 사회의 일반적 발전 과정
- (4) 민족, 집단, 계층 등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함께 나누어 가지는 의미, 가치, 생활방식
- (5) 의미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

여기서 (1)은 개념이 지닌 현실 적합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는 우리에게 매우 뿌리 깊은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는 개념으로 문화를 가치 있는 정신 활동이나 내면의 성숙으로 본다. 이것은 고급문화론으로 통칭되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3)은 문명화의 과정을 문화로 보는 것으로 다분히 물질지향적이다. 이는 문화의 상대적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문명의 척도에서 문화를 평가하는 오류를 만든다. 문화 개념으로 오늘날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것은 (4)와 (5)다. (4)는 문화인류학에서 형성된 개념이고 (5)는 현실문화연구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 둘은 모두 문화를 생활의 양식으로 보는 점에서 같으나 전자가 양식 그 자체의 분석과 설명에 치중한다면 후자는 양식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 실천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4)에 비해 (5)가 사회적, 정치적인 맥락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문화 개념은 그대로 해양문화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 바다를 통한 삶
- (2) 해양과 관련된 정신, 예술, 문명
- (3) 해양과 관련한 사회의 발전 과정
- (4) 해양과 관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는 의미, 가치, 생활방식
- (5) 해양과 관련하여 의미를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것

이러한 다섯 가지 해양문화 개념에서 그 동안 우리가 (1)-(4)의 개념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5)에 등한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은 패총 등 고고학적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오늘의 문맥에서 그리 의미 있는 것이 못되고 (2) 또한 우리에게 뚜렷한 바 없다. (3)은 근대 이후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온 해양론과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인데 자주 a)해양지향성문화(개척, 원심, 서구적)와 b)내륙지향성문화(정주, 구심, 동양적)로 구분되어 서구중심주의가 만드는 편견인 오리엔탈리즘과 결부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해양이 곧 근대성이며 근대성의 성취야말로 바른 길이라는 신화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해양문화론의 대부분은 (4)의 문화인류학적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상징론과 원형론을 위시하여 민속문화론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인류학적 문화개념은 한국인의 해양관이나 연안역에서의 생활양식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한국인의 부정적인 해양관을 타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해양문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없다. (5)는 우리가 희망하는 해양의 문화론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문화를 언어, 기호, 상징, 이미지, 담론, 내러티브, 스타일 등을 통해 실천되는 의미라고 보기 때문에 해양문화는 이미 있었던 무엇이기보다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무엇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해양의 문화론은 곧 의미 실천의 주체에 관한 물음으로 이어진다. 즉 해양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이다. 여기서 또 한번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문화의 주체는 생산자였다. 즉 작가(Author는 Authority에서 유래)와 그의 산물인 작품이 중심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중문화의 시대에서 문화의 주체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으로 생산자인가 하면 다른 한편 수용자라고 할 수 있다. 수용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을 예상한다면 문화의 주체가 수용자 대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대중들은 모두 스스로 연출가이면서 배우이다. 개성적인 스타일들을 보임으로써 일상과 생활 속에서 의미들을 생산하고 실천한다. 이들에게 문화의 소비는 곧 의미의 생산이다. 그들이 특정한 장르, 담론, 스타일들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개성적인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물론 문화의 장을 구성하는 것이 생산자와 수용자만 아니다. 이들을 매개하고 있는 문화산업이 반드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수용자의 능동성과 적극성 그리고 저항성 등이 커지면서 문화산업에 대한 관점도 크게 바뀌고 있는데 과거처럼 문화산업이 우매한 대중을 지배 이데올로기의 포로로 만든다는 생각은 불식되었다. 문화산업 또한 수용자와의 협상과 타협 없이 제대로 된 문화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해양의 문화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러한 문화산업론에 기초한 해양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다시 말해서 수용자들의 선택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을 해양문화산업이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해양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유기적인 맥락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한다.

#### 4. 탈근대적 해양문화 실천 방안

이미 해양과 근대성이 동격이라는 지적을 여러 번 하였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바다를 지배하는 자 무역을 지배하고 무역을 지배하는 자 세계의 부를 지배하고 세계의 부를 지배하는 자 곧 세계 자체를 지배하게 된다”고 한 말이나 미국의 J. F. 케네디가 “해양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최후의 프론티어이다”라는 한 것은 해양이 서구 근대성의 상징임을 웅변하고 있다. 해양이 서구중심적 근대성의 핵심에 놓인 것은 15세기 말 이후이다. 이 때부터 시작된 대항해시대는 해양을 서구 자본주의의 발달과 분리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육로와 해로의 차이는 명백하다. 해로는 타자에 대한 주체의 일방적인 시선이 작용하나 육로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자기 또한 타자가 바라보는 객체가 된다. 부스틴의 말처럼 “해로의 여행은 (육로처럼)개인이 겪는 어렵고 느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험에 찬 하나의 공동체적 도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곧 해로와 서구 중심주의적 시선의 형성과 제국주의를 의미한다.<sup>9)</sup> 중국이 홍콩을 돌려 받고 마카오를 돌려받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이를 특별히 제국주의 시대의 종언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문화적인 형태로 미국중심주의가 관철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이루어지는 문화의 세계화 곧 미국의 대중문화가 각 지역의 문화적 차이들을 줄여나가면서 보편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

9) 加藤剛(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 역), 「민족지와 지역연구-타인에 대한 시선」, 『지역연구의 방법』(전예원, 1997)

을 것이다.<sup>10)</sup>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화는 서구 근대성의 확대재생산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우리 문화의 자생력을 기르면서 고유한 가치들을 보존하고 확대해 나가는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양문화론에서 서구지향성은 충분한 성찰을 요구한다.

오늘날을 신해양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해양의 시대를 지나 분할 관리되는 해양의 시대를 맞았다는 의미이다. 유엔해양법이 1994년 11월 16일부터 국제법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한편(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 UN이 1998년 <세계 해양의 해>로 선포한 바도 있다. 육지자원의 고갈이나 세계화와 함께 해상운송의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해양이 유례없이 강조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문제 못지 않게 해양 문화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근대적인 해양문화가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해양문화를 바로 세우는 일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문화산업을 일으켜 해양문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인의 해양의식을 변화시키는 일이 절실하다. 우리는 지금 해양문화산업을 통해 한편으로 한국인의 해양의식을 해양친화적인 것으로 바꾸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본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해양에 대한 문화론적 인식 없이 해양환경과 해양산업의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해양문화 발전 방안은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해양문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가?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들고자 한다.

- (1) 해양친화적 해양문화
- (2) 육지적 시각을 탈피한 해양 문화
- (3) 지역학에 기초한 개성적인 해양 문화

먼저 (1)은 바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과 언론 제도 그리고 여러 대중 미디어를 활용하여 해양에 대한 부정적, 소극적 의식과 인식을 전환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다음으로 해양관련 문화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해양 상징을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해양 영화, 해양 광고, 해양 팸플렛, 그림 등을 생산하고, 해양과 관련된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어 해양 영화, 해양 문학, 해양 만화, 해양 유물, 해양 정보, 해양 수족관, 해양 음식 등 다양한 문화 장르와 스타일이 수용자에 의해 선택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공간 외에도 친수 공간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친수 공간을 형성함에 있어 내륙과의 단절은 극복되어야 한다. 친수 공간과 내륙의 문화 공간이 이어지는 회로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2)의 개념은 육지와 해양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생태학적 시각과 관련된다. 낙동강의 끝을 하단으로 보느냐 하구로 보느냐의 차이에 따라 분뇨처리장이 형성되기도 하고 하구언이 건설되기도 한 것처럼 바다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은 바다를 다른 세계로 보는 전통적인 해양관과 거리가 있다. 이제 바다는 다른 세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세계이다. 그러나 그것은 육지의 또 다른 식민지가 아니다. 바다의 처지에서

10) 장-피에르 바르니에(주형일 역), 『문화의 세계화』(한울, 2000)

육지를 보는 시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양문화가 바다를 육지의 타자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3)은 부산학의 관점에서 해양문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소위 부산학의 정립과 맞물린 것이어서 힘들다. 그럼에도 일정한 원칙들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산의 지역 정체성을 부산지역 해양문화 발전과 관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지역 해양문화에 대한 역사적 탐구를 위시하여 부산지역발달사와 해양도시 부산의 미래 구상 등이 함께 논의의 장에 놓여야 할 것이다. 이럴 때 막연하게 해양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세계도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세계화에 따라 세계의 도시들이 서로 유사해지고 있다는 데 착안한 개념이다. 물론 이러한 전지구적 조정 과정을 긍정적인 양상이라 할 수는 없다. 각 지역마다의 고유한 차이들이 부각되는 문화상대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산은 항구도시로서 고유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가? 부산의 전통과 근대는 어떻게 만나고 있으며 내륙과 해양은 어떻게 접합되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근대 식민지에서 출발한 부산은 일제가 부산항-부산역 중심이라는 수탈체제로 도시를 기형화하면서 부산인의 본거지인 동래 기장 다대포 등이 주변화되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으며 따라서 부산의 전통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해양과 내륙의 단절은 심각한 일면이 있다. 도로들이 이 둘을 잇는다고보다 이 둘을 구획하는 경계선 구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 5. 남는 말

해양의 문화론은 해양문화를 의미실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지나간 시대의 생활양식 분석을 통하여 이러저러한 해양문화가 있었다는 인류학적 문화연구로 해양문화 발전의 대안을 구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해양문화를 현실문화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양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해양문화의 자료들을 집성하고 이를 보존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다음으로 이를 지역학(부산학)과 연결시켜 지역의 정체성에 상응하는 해양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앞서 말한 대로 현실적으로 문화의 주체가 수용자 대중인 만큼, 수용자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생산 프로그램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해양문화는 전통적으로 소극적이어서 잔존적이거나 밖으로부터 이식된 것이 묘하게 착종된 상태이므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양문화론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소기의 문화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해양 인식의 일대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지속적인 문화 프로그램들이 실천되어야 하고 이들 뒷받침할 해양문화산업에 집중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